# 요약

## 2014년 '협력적 거버넌스' 선언 후 마을·학교 연계사업 추진

2014년 9월 시와 교육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선언 이후, 마을과 학교를 연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. 시 교육청은 1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「혁신교육지구」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, <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>는 「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」를 추진 중이다. 마을을 매개로 한 서울형 교육혁신 모델이 실험되고 있는 것이다.

## 마을·학교 연계, 주민·교사 준비 부족에 제도적 기반도 미흡

마을과 학교의 연계는 '마을이 지닌 자산을 교육적 관점에서 활용하고, 새로운 마을주체로 학교를 재설정한다'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. 그러나 주민 스스로도 지역을 모를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, 학교 또한 마을과의 협력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. 더구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나 행정 시스템 등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.

##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, 시·교육청 거버넌스 형성 등 필요

조사 결과,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위해서는 △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, △정책추진을 위한 학교와 마을 간 신뢰형성, △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 및 기반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.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장기적인 서울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와 교육청 간 거버넌스 형성이 필요하다. 또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욕구가 큰 초등학교와 교육복지 사업 등 기존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, 지역교사 등과 같이 마을과 연계를 조율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.